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아휴 덥다. ☺

제목 : 나의 하루 (My life)

오늘 구기대회가 있는 날이다. 하지만 외할머니  
 댁에 가서 구기대회를 못간다. 그리고 아현이와  
 서연이 언니를 만나서 좋아 지하철을 타고  
 갔는데 외할머니를 만났다. 그래서 같이  
 고기집에 갔더니 아현이가 없었다.  
 이 말은 안오셨단 말이다. 사실은  
 시골댁에 간 것이었다. 그래서 오빠와  
 같이 놀았다. 외할머니 댁에서 고기집으로  
 놀다가 가야 할 시간이 된 것이었다. 그래서  
 집에 오고 오빠 친구와 놀았다. 나랑 엄마는  
 타임스퀘어에서 엄마 사촌 언니를 만났다.  
 그리고 난 쇼핑이나 했다. 집에 오면  
 오빠와 오빠 친구가 있었다. 그 오빠도  
 역시나 잠깐 오셨다. 아나중 ~ 우리 집이  
 먼 편인데 아닌데..... 하트 하트 번갈고  
 아닌데 정말 짜증 났다. 그리고 자킨도  
 먹고. 어쨌든 기쁨 자랑이다. 이제  
 씻고 잘 시간이다. 12시... 1시... 2시...  
 아이 잠 안오다. TV 나 볼까? 3시...  
 4시... 아현이 이제 졸리다. 그럼 good night.